

## 예산 79%·사무 72% 중앙 예측... 초라한 지방자치의 날

복지비용까지 떠넘겨 재정난 갈수로 심화  
지방자치제 부활 22년... ‘5할 자치시대’ 요원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2할 자치’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무와 재정 중 앙정부에 예측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각종 사회복지 비용을 자치단체로 떠넘기면서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광주·전남의 경우 자치는커녕 직원 인건비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5할 자치’를 주장

및 전략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부활 22년째를 맞이한 지방자치제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못해 비참하다. 말 그대로 사무와 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측돼 있는 ‘예속 자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자치단체의 자부재원인 지방세 비중을 보면 국세 79%대 지방세 21%로, 8대 2의 비율이다. 재정 2할 자치인 것이다. 반면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지방세 비중은 50%대다. 자부재원 즉, 자치단체에서 쓸 돈이 부족하다 보니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1.0%에서 올해 40.1%까지 급락했다. 광주시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 매년 1000억원 안팎의 빚(지방채)을 내고 있다.

지방자치의 양측인 지방의회 역시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해도 정부와 국회가 제정한 상위법에 막히는 경우가 많아 자체 입법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에서 “재정 측면에서는 2할 자치도 안 되는데, 복지비 부담액 등이 갈수록 늘어나 지방의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소득세와 소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50%를 국가와 지방간 공동세로 운영하면 4할 자치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알림**



지난 3월에 열린 제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개강식.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광주·전남 리더들을 모십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1·2월 정치특강 특별편성**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 광주·전남지역 각계의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지난 3월부터 지역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1년과정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또 내년 학기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1, 2월 정치컨설팅 및 정치특강을 특별편성했습니다.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61년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는 지역사회의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수강생들에게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가족으로 모시는 최고급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모집인원: 00명
- 지원자격: 기업 최고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자치단체 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단체장 및 고위 관리자, 법조 의료·교육·문화·예술계 등 전문가
- 교육기간: 2014년 1월~2014년 12월(1~2월 정치특강)
- 강의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8시30분(호텔식사제공)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13년 11월 4일~12월 20일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서류전형후 개별통보
- 문의: 광주일보 프로젝트팀 (062)220-0555

光州日報社

## ‘F1 국감’ 전남도 국감, 적자 질타... 지속 개최 공방

1900억원대 누적 적자로 지속 개최 논란을 낳고 있는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국감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3면>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남도청에 대한 국감감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해 F1대회 개최 중단과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감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승우(경기 이천), 통합진보당 이상규(서울 관악) 의원은 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등 초강경 질문을 쏟아냈다. 유 의원은 “전남에 기반을 둔 기업



제12회 세계한상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기업전시회 부스를 설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세계한상대회 오늘 개막 총리·미래부 장관 개회식 참석**

한민족 최대 글로벌 비즈니스 축제인 ‘제12차 세계한상대회’가 29일부터 31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조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열린다. <관련기사 2면> 호남권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45개국 한상(韓商)을 비롯 해 국내외 경제인 3000여명이 참가하며 대회 첫날인 29일 오전 기업전시회 개막행사에 이어 오후 5시부터 정오부터 10시까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강운태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는다. 30일에는 식품의식, 섬유패션, 첨단IT, 비즈니스 서비스 등 4개 분야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와 멘토링 세션이 마련되고 한상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도 개최된다. 31일에는 광주시 투자환경 및 2015광주국제대회 마케팅설명회와 리딩 한상 비즈니스 미팅, 폐회식 등이 이어진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2014 학부 신입생모집**

수시 2차모집  
2013년 11월11일(월)~15일(금)  
정시모집  
2013년 12월19일(목)~23일(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062)605-1114

**61** 광주일보 since 1952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The New A-Class**  
1등급\*  
\*효율적인 연비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신성자동차(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3-15 / Tel. 062-226-0001

정부표준 연비 및 등급 \* A 200 CDI 1,796cc, 1,475kg, 7단 듀얼클러치 변속기, 복합연비 18.0km/ℓ(도시연비 16.0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07g/km \* A 200 CDI Style CDI 1,796cc, 1,475kg, 7단 듀얼클러치 변속기, 복합연비 18.0km/ℓ(도시연비 16.0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07g/km \* A CDI Night 1,796cc, 1,475kg, 7단 듀얼클러치 변속기, 복합연비 18.0km/ℓ(도시연비 16.0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등급, 복합CO<sub>2</sub>배출량 107g/km ※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Mercedes-Benz